

## 민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의 역사적 현실과 민중의 희망

박 정 세(교수, 연세대학교)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계속해서 조르면 할머니가 이제는 다해줘서 없다고 하실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 있잖아”하고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육 년 전 우연히 영국에서 우리 대학의 한 영문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할머니 세대의 역사적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 다른 자료와 비교하며 논문으로 낸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좀 단순화하여 풀어보려 한다.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구한말에 태어나 십대에 시집을 가서 가난한 살림을 챙기며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한일합방의 과정을 목도하고, 일제의 갖가지 수탈을 피부로 느끼며 소위 대동아전쟁으로 일제의 만용과 더불어 현실의 곤궁함 속에서,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해방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 후 남북이 분열되고 6·25동란을 겪고 계속되는 어려움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삶을 사셨다.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1. 옛날 두메산골에 한 아이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가 일을 해 주며 품을 팔아 근근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2. 하루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산 넘어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 주고 떡 열 개를 얻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였다. 그래서 떡을 하나 주었다. 다음 고개를 넘으려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나 다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다. 그래서 또 떡을 하나 주었다. 다시 길을 걸어 다음 고개를 넘으려 하니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 ...중략(그 때는 열 고개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반복했다.)...그래서 열 번째 고개에서 떡을 다 빼앗기고 또 산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니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제는 떡이 없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고리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 저고리를 벗어주고 또 다음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 이번에는 치마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중략(다음에는 속옷을 벗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팔, 그리고 다리까지 차례로 뜯어먹은 호랑이는 결국 이 여인을 잡아먹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계속 되었다.)

3. 이제 호랑이는 그 여자의 옷을 입고 그 집으로 가서 “얘들아, 내가 왔다. 문 열어라”하고 소리 질렀다. 아이들은 무언가 이상한 낚새를 차리고 우리 엄마 목소리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엄마 손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가락을 디밀었다. 호랑이가 손가락을 디밀자 손을 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손이 아니라고 하자, 부잣집에 가서 발 매주고 일하느라고 손이 거칠어 졌다고 하자 아이들은 할 수 없이 문을 열

어 주었다.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는 막내아기를 데리고 아랫목에서 자고 남매는 윗목에서 자게 되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매가 깨어 보니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가 막내 동생을 잡아먹고 있었다. 남매는 겁이 나서 어찌할 줄 몰랐다. 도망치기 위해 피를 내었다. 그래서 둘은 배가 아프다고 하며, 똥을 누러 가야 되겠다고 하였다. 변복한 호랑이는 방에다 누라고 했지만, 남매는 냄새가 난다며 칩간에 가야 된다고 자꾸 우기니까, 할 수 없이 빨리 다녀오라고 하였다. 남매는 칩간에 가는 척 하고 도망쳐서 우물 위에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다.

남매가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가 찾으러 나왔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우물에 다달은 호랑이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자 물에 비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랑이는 물 속의 아이들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 호랑이의 하는 짓이 하도 우스워 아이들이 ‘히히’하고 웃었다. 그제서야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알고 나무를 쳐다보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남매는 앞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 바르고 올라 왔다고 하니, 호랑이가 앞집으로 달려가 참기름을 갖고 와서 밭에 붓고 호랑이가 나무로 기어오르려고 하자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졌다. 호랑이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물으니 “옆집에서 도끼를 빌려다가 찍고 올라왔다”고 했다. 도끼를 가지고 온 호랑이가 나무를 찍으며, 위로 올라 왔다. 남매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4. 그러나 그 남매는 하늘에다 빌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현 동아줄을 내려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 왔다. 남매는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자 호랑이도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 하늘에 빌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 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현 동아줄을 내려 주십시오” 하자 현 동아줄

이 내려 왔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 줄에 매어 달렸기 때문에 얼마 못 가 줄이 끊어져,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다. 수수가 빨갭게 된 것은 그 때 떨어져 죽은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 남매는 달과 해가 되었다고 한다.

## 1. 일상적 상황

이야기의 첫 부분은 한 가족의 일상적인 삶이 언급되고 있다. 먼저 한 여성이 등장한다. 그 여성에 관한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가족의 가장인 남편 혹은 남자의 역할이 소외된 것이 특징이다. 남편을 사별했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장의 상실로 인해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여인은 남의 집의 방아 찧는 일도 맡아 하고, 베도 매고, 집안 일도 거들어 주는 소극적 대외 경제활동을 감당해냄으로써 그 삶을 유지한다. 그렇다고 무슨 큰 근심 걱정애 매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소박한 평화가 넘쳐나는 분위기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도 평범한 사실이기에 어느 한 가정의 일로 제한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즉 이는 한 가정의 소박한 생활 모습이면서도 조선 백성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적나라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서두는 겉보기에 아주 간결하고 평범하지만 과거의 시간과 현재가 연결되고, 미지의 공간이 지금 내가 선 자리까지 연장되는 한 민족의 일상적 행태를 고스란히 옮겨 놓고 있다.

## 2. 사건의 시작과 전개과정

가난으로 인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일상을 꾸려 나가던 어느 날, 그 소박한 평화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호랑이의 출현으로 묘사되고 있다. 호랑이가 사람 앞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필경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이 여자가 품을 팔아 댓가로 받아오는 떡을 달라고 하며, 떡만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한다. 호랑이답지 않은 행동은 이 호랑이가 호랑이 그 자체가 아님을 은연중 노출하고 있다.

민담 속의 호랑이의 모습과 상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호랑이는 산신령과 연계되기도 하고 효부와 열녀의 희생에 신기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며, 은혜를 갚는 성향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나, 역시 이러한 모습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호랑이는 역시 힘과 권력의 상징이요, 지배와 침탈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에서도 호랑이는 그 힘과 지략으로 모든 것을 앗아 가려는 본성을 보임으로써 이 호랑이가 바로 침략자요 탈취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그 횡포와 약탈이 매우 용이주도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또 다른 탈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추후에 알게 된다.

호랑이가 탈취하는 수법은 철저하게 동일하다. 즉,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겠다는 것으로, 다른 것은 보장하겠다는 전제를 해놓고, 하나하나 뺏어 모두를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앗 품을 팔은 댓가로 받은 떡을 하나하나 탈취해가는 과정이 묘사되고, 두 번째는 저고리로 시작하여 속곳까지 그 여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 하나로 시작하여 사지가 없는 몸둥이까지 모든 신체와 생명까지 박탈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소득을 탈취하고, 다음에는 소유(재산)를 빼앗아 가더니 결국은 생명까지 박탈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교활하고도 계략적인 탈취행위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전개한 이유는 무

엇일까? 이것은 역사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1906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아래 조선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된 일제의 조선 약탈과 강점 과정은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당시 조선의 대외수출의 60-70%는 조선의 산물을 헐값에 일본으로 가져가는 소위 '약탈무역'이 성행하고, 강압적으로 '한일통어협정'을 맺음으로써 성능 좋은 일본 배들이 조선 어장을 휩쓸기 시작하는가 하면, '광업법'을 발표하여 광물 착취를 공식화하고 있다.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토지약탈을 시작하고 있다. 즉, 그들에게는 토지매매, 경영관리, 건축 및 건축물 매매에 특권이 부여되고, 일본인 이민을 모집하여 자금대차 등의 특혜를 통해 토지를 포획하며, 고리대 자본을 통해 토지약탈을 자행해 나감으로써, 1908년에 이미 동 회사의 토지 소유 면적이 11,000정보에 다다르게 되며, 1910년에는 조선의 일본인 경작지 면적이 76,930정보에 이른다. 그리고 1912년 조선토지 조사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소유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 한 후, 복잡한 신고주의에 의해 토지들을 탈취하였다.

또한 역둔토, 공장토, 이간지, 석간지를 국유지 명목으로 빼앗아 가고, '소속위반', '증거불명'의 구실로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였으며, 군용지, 철도용지, 도로용지 등 각종 명목으로 토지약탈을 감행해 나감으로써 토지의 약탈을 통한 조선의 일본화에 피치를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 증가 통계를 보면 그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토지가 강탈됨에 따라 소작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조선 농민들에게 일제는 정조법(定組法), 조법(祖法), 타조법(打組法) 등을 적용, 실제 수확의 50-60%를 빼앗아 갔으며, 지세, 공과금, 수리조합비, 용수료 등 반(半)봉건적 지대를 부담시키는 등 소득 박탈에 혈안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찬탈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노무징용령'에 의해 강제 징용을 시작하는데,

일본측 통계로도 3,340,902명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국민정신 총동원연맹’과 ‘애국방’을 조직하여, 국기계양, 궁성요배, 신사 참배, 정오묵도, 황국신민서사제창, 그리고 일본어를 상용토록 강요함으로써 조선의 정신말살정책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급기야는 ‘창씨개명’(1939년)을 강제로 실시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실제로서의 구체적 과정들은 민초들에게 생명보호를 댓가로 소득을 착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소유를 하나 하나 강탈해 가고, 급기야는 몸과 정신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마는 침략자의 계략과 찬탈의 현장을 뼈에 사무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사건의 종말

이 부분의 이야기는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자녀들을 잡아먹기 위해 그들을 속여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계획대로 제일 작은 아이부터 잡아먹는 과정에서 오누이가 이를 눈치채고 도망친 내용, 그리고 셋째는 나무 위에 숨어 있는 남매를 따라 올라가 붙잡게 되는 내용이다. 산 고개에서, 어찌 보면 필요 없을 것 같은 옷들을 하나하나 갈취해 놓은 것은 바로 이 단계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호랑이는 순진한 오누이에게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여, 남매로 하여금 호랑이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꾸며 결국 그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 침략자의 목표는 그 아이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것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애기부터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쉬운 일, 반발할 수 없는 일부터 착수해 나가고 있다. 남매는 어느 정도 성장하였기에, 비록 논리적으로는 호랑이를 반박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않은 가운데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집에

들어온 자가 보호자가 아닌 강탈자임을 직감하고 슬기를 동원하여 일단 침략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오누이의 도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호랑이가 기어오르기 쉽지 않은 뒷 곁 우물 옆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지만 얼마가지 않아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필자의 입장으로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현실은 여기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누이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 상황이요, 이러한 여건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겠다. 순진하고 소박한 무수한 사람들이 침략자의 강탈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이 부분 역시 역사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도 모두 앗아가고 성을 바꿈으로써 조선인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킨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보다 큰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징용도 바로 그들의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는 한 과정에 불과했다.

일제의 침탈은 이제 2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1943년 일제는 ‘육군특별지원 명령’을 실시하는 것을 필두로 ‘학도병제도’와 ‘해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 조선의 수많은 아들들을 그들의 총알반이로 희생시키고,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조선의 딸들을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불합리한 구조와 난국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침략자의 횡포 아래서 연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희생되는 것 그 자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 4. 민중의 한(恨)과 희망

역사적 현실은 무조건 힘있는 자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허



다하다. 민중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그 현실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의 현장은 비록 모순 투성이로 매듭지어 지고 있지만, 민초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운명처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몸은 찢기고,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옹고 그름에 대한 확신과 불의의 과멸에 대한 열화 같은 희망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양심의 기저요 그들의 유일한 호소 대상인 하늘에 탄원하게 된다. 진정 누가 옹고 누가 그른지 하나님은 알 것이기에 하늘에 심판을 호소함으로써 이야기를 새롭게 발전시킨다.

오누이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고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다. 역사적 현실은 모순 투성이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옹고 그름을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적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침과 바램은 결코 희망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불합리한 현실을 운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허탈한 외마디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솟구치는 탄원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의 근원이 되었으며, 죽음도 넘어서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기대했던 대로 새 동아줄이 내려온다. 아니 내려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탈자는 이제 솟구치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을 이용하려 한다. 하늘은 그에게 현 줄을 준다. 이것은 이미 일차적인 심판의 향방을 알려준 것으로 누가 보아도 합당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침탈자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현 줄을 타고라도(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 계속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과멸에 이르고 만다. 현 줄이 내려 왔을 때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었다. 민중은 하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설령 악한 자에게라도, 스스로 파멸을 막을 기회를 부여하는 존재임을 표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못 이겨 패망을 자초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야기는 계속 심판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호랑이는 줄이 끊어져 수수밭에 떨어졌고, 마침 수수대를 잘라 놓은 상태라 수수대에 꽂혀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으며, 그 때 수수대에 묻은 피가 그 후로도 수수대를 붉게 물들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수수대의 붉은 무늬야말로 악인이 받은 심판을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동반한다. 그것은 악인의 멸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인 동시에 악한 행동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예방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해와 달, 혹은 자리를 바꾸어 달과 해가 되었다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늘로 올라간 남매의 건승을 확증하기 원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막연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착한 아이들의 승리가 추상적이 됨을 금할 수 없기에 이를 보다 분명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이야기의 역사적 현실을 일제와 연계하여 설명하다 보면 동아줄의 내림과 하늘에 오름 그리고 해와 달은 8·15해방과 연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하의 민담전승과정의 애환서린 바람이라면 해방 후에는 성취된 희망에 감격하는 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들은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큰 희망의 빛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으로 그 희망을 전하신 것이라 믿는다.